

#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제230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현(AD본부)
- 김중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정기상(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939)

## 2019년 동아미디어그룹, 새로운 100년을 향한 '리디자인'

동아미디어그룹 각 조직들이 2019년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100년과 개국 100년을 향한 '워크 리디자인'. 동아미디어그룹 전체의 관점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따져보고 재정비합니다. 연말연초 정국을 주도한 동아미디어그룹의 콘텐츠 파이는 더욱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올해도 동아미디어그룹 화이팅!

##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2019년 동아미디어그룹 연차보고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렸다. 사진은 23일 동아일보 연차보고 모습. 사진=편집국 사진부 원대연

# 변화와 혁신을 위한 '워크 리디자인' 스타트

(work re-design)

## 새 100년 앞두고 2019 연차보고... 애자일TF 등 돌보며 '터칭콘텐츠와 아이브랜딩'-개방적 협업 차별화계획 눈길

새로운 100년을 앞두고 열린 2019년 동아미디어그룹 연차보고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워크 리 디자인(work re-design)'이었다. 1월 22-24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 연차보고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들은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본원적 경쟁력,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워크 리 디자인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100년을 향한 '워크 리 디자인'

동아일보 편집국은 기존 부·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취재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애자일(Agile) 태스크 포스(TF)'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슈에 따라 가장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독성 있는 기사와 파격적인 그래픽을 2면에 배치해 동아일보만의 개성을 살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채널A 보도본부는 백화점식으로 리포트를 나열하는 포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리포트 개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다 젊은 시청자들을 위해 생생한 뉴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제작본부는 '도시어부' '하트시그널'과 같은 킬러콘텐츠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보다 과감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파일럿 콘텐츠 실험에 나선다. 시즌제 신규 콘텐츠 론칭도 예고했다. 새로 신설된 드라마센터는 올해 3편 이상 드라마를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편성본부는 시청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드라마와 예능을 배치하는 전략적 편성 방안을 제시했다. 시청률뿐만 아니라 많은 화제를 불러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한다. 김 사장은 "젊은 채널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과감한 시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생명력 불어넣는 '터칭 콘텐츠'

동아미디어그룹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 전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텔링 콘텐츠'를 넘어 '터칭 콘텐츠'로 개개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은 스토리 방식으로 진행됐던 '논점(논설위원 점심토크)'을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발전시켜 지면과 온라인에 프리미엄 인터뷰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생한 현장과 논설위원의 관점을 담은 콘텐츠도 생산한다. 동영상도 강화한다.

콘텐츠기획본부는 온라인 콘텐츠에 인포그래픽이 더해지는 토요판 업그레이드를 예고했다.

### '개방적 협업'으로 경쟁력 차별화 실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업 마인드로

대표되는 동아DNA는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동아닷컴은 편집국과 속보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디지털 콜라보레이션'을 확대한다. 김 사장은 "섬세함의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며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등 올해 초 줄줄이 예정돼 있는 대형 이벤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100년을 앞두고 뉴센테니얼본부를 중심으로 동아미디어그룹 전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100주년 준비에 힘을 모아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경석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1월 24일 채널A 연차보고에서 "워크 리 디자인은 새로운 100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쏟아진 디지털콘텐츠 실험... "완전히 다른 문법 시도해야"

### 편집-출판국-스포츠동아 등 동영상콘텐츠 제작 확대방침 "신설 1,2theC스쿼드에서 디지털문법 실험적시도"

1월 22-24일 사흘 동안 열린 2019년 동아미디어그룹 연차보고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실험과 동영상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멀티 플랫폼 시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아일보 편집국은 동영상 콘텐츠를 적극 제작해 유튜브 계정을 활성화하고,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디지털 마

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출판국도 전문분야별 유튜브 및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기자들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전략연구소는 유튜브 채널 전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년드림센터도 SNS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는 등 영상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스포츠동아는 디지털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한 기사를 출고

하고, 기자들이 참여하는 동영상 제작을 확대해 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또한 자체제작 동영상을 확대해 콘텐츠 실험에 나서겠다고 했다.

보고를 들은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막연히 영상을 만들어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지면에 나갔던 콘텐츠를 디지털로 옮기거나 동영상 콘텐츠에 도전할 때는 완전히 다른 문법, 디지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법으로 바꾸는 통번역(Translation)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를 소비하는 타깃층에 맞는 제작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올해 경영전략실 내 신설된 1theC, 2theC 스쿼드 조직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를 할 예정이다.

1theC, 2theC 스쿼드는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부서가 갖고 있지 않은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다.

20년 경력의 예능 PD와 앵커 경험이 있는 19년차 기자가 팀장으로 각각 팀을 이끌고 있다. 팀원으로는 대학생 시절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MCN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는 사원,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출신 신입사원 등이 함께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현수

# 청와대 인사, 김태우 인터뷰... 정국 주도한 DAMG 뉴스콘텐츠

## 참모진 개편 특종... “고비마다 동료 도움”

### 채널A 김태우수사관 인터뷰 “세상으로 나오라” 꾸준히 설득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국을 뒤 흔들던 대형 이슈들이 터져 나왔다. 동아일보·채널A 기자들은 이슈를 주도하는 대형 특종을 잇달아 터트리며 이슈를 주도했다.

#### 동아일보 특종 막전막후

시작은 지난해 11월 말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이 있다”는 사내 제보. 즉시 이곳 저곳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한 인사의 도움으로 당사자 중 한 명이 A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삼청동의 한 술집에서 거론된 대상자 중 한 명인 A와 마주 앉았다. 상당한 취기에도 그는 “아니다”고 했다. 역시나, 정치권의 여러 소문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한 청와대 관계자가 “당신이사 표명 여부를 물어본 세 번째 기자”라고 했다. 덜컥 겁이 났다. ‘이러다 크게 당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레이더를 세우고 점심, 저녁 자리마다 낚싯대를 던졌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여의도에 있는 취재원들에게도 “인사 이야기 들리는 게 있다면 작은 거라도 알려달라”고 했다. 단독 기사를 쓰겠다는 욕심이 아니었다. ‘물은 먹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었다.

보름 가량 지나자 서서히 입질이 왔다. 계속된 ‘조각 맞추기’ 끝에 교체 대상도, 시점도, 후보군도 추려졌다.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 싶었다.

여기에 데스크와 국장단의 상황 판단도 정확했다. 첫 기사를 쓰는 날, 예고 없이 북에서 친서가 날아왔다. ‘꼭 오늘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기사는 정확한 타이밍에, 최적의 힘으로 날아가 과녁을 꿰뚫었다.

이후 후임 인사와 관련해 누가 내정됐는지, 누가 유력하다는 내용의 취재가 계속됐다. 허튼 소문으로 보도 방향이 바뀔뻔한 적도 있었지만, 정처부 선후배들이 부분부분 확인을 해줘서 팩트를 가릴 수 있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작성한 1면 기사에서 등장했던 이름들은 8일 발표된 최종 인사 명단에도 포함 됐다.

명단을 보자 비로소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리고 8일 저녁, 다시 만난 A는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뒤 ‘이 미 알려졌으니 인사를 더 미루지 말자’로



채널A는 김태우 수사관을 단독 인터뷰해 지난해 12월 27일 뉴스A 첫 기사로 보도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 편집국 정치부 한상준

#### 채널A 단독 인터뷰 막전막후

시골벽적한 부서 송년회 자리가 이어지고 있었을 때였다. 불쑥 전화를 걸은 그는 답답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하자” 순간 그 떨림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 이내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되물었다. “확실히 하는 거죠? 못 무릅쓰니까.”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첫 방송 인터뷰는 그렇게 성사됐다. 대검 검찰본부가 김 수사관의 검찰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김 수사관은 사회부에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취재원으로, 얼굴정도만 아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됐다.

처음 폭로할 때부터 그는 단호하게 방송 인터뷰만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서 얼굴만큼은 알려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감옥까지 각오했다면 그랬지만, 인간적 고뇌는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는 중요했다. 시청자들은 왜 이 사람이 폭로에 나선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온전히 김 수사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온전히 김 수사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온전히 김 수사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온전히 김 수사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온전히 김 수사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를 설득한 열쇠는 그가 보호하고 싶다는 가족이었다. 검찰 결과 발표가 다가왔을 때 쯤, “억울한 게 있으면 숨지 말고 나와라 그라야 가족에게 뻗뻗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절이 아닌 “알겠다”는 묘한 답이 돌아왔다. 그때까지만해도 인터뷰에 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세상에 나오기로 결심했다.

그의 말이 진실인지는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세상에 나올 결심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나온 만큼 그의 주장이 정치적 맥락으로만 이해될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의 진심을 인터뷰로 전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도본부 경제산업부 김남준

## 임종석 靑비서실장 2월 설 전후에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설(음력 5월) 전후 대령비서실장과 정부수석비서관, 국민소송수석비서관 등을 교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2인자 임종석 비서실장도 임종석 부실장 조소동, 서기장 최재호, 서기장 최재호, 서기장 최재호 등 고위직 인사 교체를 앞두고 있다. 임종석 부실장 조소동, 서기장 최재호 등 고위직 인사 교체를 앞두고 있다. 임종석 부실장 조소동, 서기장 최재호 등 고위직 인사 교체를 앞두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31일자 1면 특기사로 청와대 비서진 개편 특종 기사를 처음 보도하며 이슈를 주도했다.

#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맨 앞에 '동아'

## 영예로운 제복상-신춘문예 행사 동아연극상 55회 시상식도 열려

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복을 입고 헌신한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열린 '제8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22년 동안 바다를 누비며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을 단속해온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박성록 경감이 대상을 받았다. 공무 중 순직한 위민경찰관상, 위민 소방관상 수상자 5명은 가족이나 동료 가 대리 수상에 나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제복상과 특별상 등 15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제복을 입고 임무 수행하시는 모든 분이 주인공”이라며 “깊은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동아일보가 2012년 제정했다.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봉사, 상을 상징하는 제복을 입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9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문화예술 후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25년 국내 처음으로 시작돼 황순원 서정주 김동리 등 문학계 거목을 배출한 동아일보 신춘문예는 2019년에도 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2019년엔 9개 부문에서 2345명의 응모자들이 모두 7330편의 작품을 투고했다. 응모작은 지난해보다 350편, 응모자는 85명 늘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해외 곳곳에서 이메일로 응모작을 보내왔다. 편집국 문화부 이철

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성해나(중편소설) 강석현(단편소설) 최인호(시) 강대선(시조) 민경태(동화) 최상운(희곡) 고지에(시나리오) 김재희(영화평론) 박다솜 씨(문학평론) 등 9명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앞서 1월 14일에는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에서 KT와 함께하는 제55회 동아연극상 시상식이 열렸다. 동아연극상도 1964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창설돼 연극 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동아연극상심사위원회는 2018년 공언된 연극 중 본선에 오른 작품 21편을 심사해 10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남산예술센터와 극단 등이 공동 제작한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과 프로젝트 아일랜드가 제작한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란히 작품상을 수상했다. 편집국 문화부 이철

# 글로벌 키즈 콘텐츠... 3G 마라톤대회...

## 미디어경영직 신입 12명, 신규사업 이색 아이디어

“동아미디어그룹이 가진 콘텐츠와 제작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키즈 콘텐츠 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공채로 입사한 미디어경영직 신입사원 12명(동아일보 5명·채널A 7명)은 11일 직무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동아미디어그룹의 신규사업 기획 및 매출 증대 방안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이 구축해온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당찬 꿈들이 이어졌다. 먼저 키즈 인터랙티브 콘텐츠인 '액션 키즈월드'(가제)를 만들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어린이동아, 수학·과학동아 등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어 미래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에 맞춘 '2020 3G(Three Generation, 삼대) 동아마라톤대회' 기획도 제시됐다. 기존 마라톤대회에 지역문화 체험, 역사교육, 팝업스토어 등을 결합해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터치콘텐츠(Touching Contents)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다. '동아비즈니스포럼'에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초청해 젊은 리더를 지원하거나, '슈퍼 팟 쇼'에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점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발표에 참여한 신한솔 매니저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자산들을 배우면서 동시에 참신한 아이템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송상훈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선정한 '제8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들이 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2019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이 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미소 짓고 있다.



미디어경영직 신입사원인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윤수경 매니저가 1월 11일 직무교육 중 'DAMG 프로그램 확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목소리만으로 이런 감동을?” 예능의 지평 넓은 보컬플레이

### 마지막 녹화현장, 프로듀서와 플레이어 환상의 조합 선택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채널A가 주류로 만들어줘” 감격

지난 1월 12일 일산 빛마루 스튜디오엔 녹화 방송을 보러 온 방청객으로 가득했다. <보컬플레이>의 마지막 녹화 현장이었다.

<보컬플레이>는 악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독특한 콘셉트와 화려한 프로듀서 군단, 개성 넘치는 플레이어들의 출연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해 왔다.

#### 프로듀서 X 플레이어 환상의 조합

마지막 미션 주제는 ‘All Together’. 그동안 자신의 팀에 속한 플레이어들을 무대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프로듀서 윤상, 윤일상, 스윗소로우, 뮤지가 팀원들과 함께 공연을 진행했다.

윤상은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 R&B 디바 유성은, 레트로 듀엣 바버렛츠, 가수 넵킨스와 함께 팀을 이뤄 팝송을 불렀다. 뮤지는 비트박서 에이치 하

스와 히스, 팝페라 보이그룹 파라다이스, 팝페라 가수 배다해와 함께 ‘걱정말아요 그대’와 ‘손에 손잡고’ 등 두 곡을 선보였다. 스윗소로우는 아카펠라 그룹 컨템포 디보, 비트박서 마이티, 래퍼 지루, 한해와 함께 박효신의 ‘야생화’를 부르며 감동의 무대를 만들었다. 프로듀서 윤일상과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 브로맨스는 god의 ‘춧불하나’를 부르며 관객들과 함께 하늘색 물결을 만들어냈다.

네 팀 중 스윗소로우팀이 보컬 페이트 300인의 투표로 최고점을 받으며 마지막 MVP의 주인공이 되었다. 스윗소로우의 김영우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 함께 마음을 만들어갔다. 매순간 진심을 담아 노래했고,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무대였다. 보컬플레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주류였다”고 마지막 무대 소감을 밝혔다.

앞서 오프닝 공연에서는 각 팀 플레이어가 요즘 가장 핫한 ‘Queen’의 대표 곡들을 부르면서 차례로 등장했다. 36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오프닝 무대의 마지막 노래인 ‘Somebody to love’를 부를 때에는 관객석에서 ‘폐창’이 터져 나왔다.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파이널 공연답게 스튜디오는 뜨거운 열기와 감동으로 가득했다.

#### 시청자가 직접 선택한 ‘스페셜 공연’

<보컬플레이>만의 특별한 무대도 준비



최초 아카펠라 뮤직쇼 <보컬플레이>가 지난 1월 12일 일산 빛마루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공연을 가졌다. ‘All Together’ 미션의 MVP를 발표하는 모습(1)과 스윗소로우팀(2), 윤상팀(3), 윤일상팀(4)의 공연 모습.



<보컬플레이> 마지막 공연 방청객이 SNS 인증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됐다. <보컬플레이>는 지금까지 비트박서, 아카펠라 그룹, 보컬, 래퍼, 오페라 그룹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매번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 왔다.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국가대표급 비트박서 5명이 스페셜 공연을 마련해 전에 없던 파격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이번 스페셜 무대는 <보컬플레이>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무대를 투표해 선정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비트박서 히스, 에이치 하스, 마이티, 허클, 윈은 ‘보컬플레이’에서 인간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는 비트박스 실력으

로 그들의 목소리 자체가 음악임을 증명한 바 있다. 이들은 레이저와 비트에 맞춰 신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300명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스튜디오는 한 순간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클럽으로 탈바꿈했다.

#### 활발한 SNS 인증 프로모션

녹화 당일에는 <보컬플레이> 공연을 보기 위해 녹화장을 찾아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현장 프로모션도 진행됐다. 공연장 한편에 마련된 포

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 블루투스 스피커 등의 경품을 증정했다.

현장에서 방청을 기다리던 관객들은 포토존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추억을 남겼다. 이벤트에 참여한 관객들은 ‘예능을 보면서 웃음과 감동을 이렇게 조화롭게 느낀 적이 없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마지막회 정말 최고였다’ 등 생생한 후기를 남겼다.

<보컬플레이>는 26일 감동적인 무대를 끝으로 3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안주영

## 취업이 화두인 시대... 새 리얼리티 예능 ‘굿피플’ 촬영

### 인턴번호사 8명 한 달간 미션 수행, 1명 채용... 3월 첫 방송

<굿피플> 인턴 번호사들의 회사생활이 시작됐다.

지난 1월 14일부터 한 달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굿피플> 첫 촬영에 돌입했다. 8명의 인턴 번호사들은 한달 동안 소속 번호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각종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굿피플>은 8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로폼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해 1등이 된 1명만이 채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3월 초 첫방송된다.

고급스런 가구들이 놓인 로폼 사무실에 출근한 인턴 번호사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션들을 기대하면서도 긴장한 표정이 엿보였다. 남자 5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한 달 동안 실패없이 주어지는 미션들 속에서 다른 인턴들과 때로는 든든한 동료로 때로는 경쟁자로 함께 생활해야 한다. 인턴들의 모습은 누구나 겪었던 사회 새내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인턴들의 멘토가 될 로폼 소속 번호사 4명들의 활약상도 기대되는 포인트

다. 번호사들은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한 모습으로 인턴들을 웃기고, 울리는 존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엔 이들을 지켜보는 패널들이 있다. 패널들은 매회 ‘미션 상위 인턴’을 예상한다. 결과를 맞춘 횟수가 쌓이면 추가 합격자를 만들 수 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성장기를 그려내는 <굿피플>은 ‘취업’이 큰 화두인 요즘 20, 30대에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노수아



3월 첫방송되는 신규 리얼리티 프로그램 <굿피플>의 8명 인턴 번호사들이 로폼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채널A ‘재난대비 우수 방송사’ 방통위장 표창받아

채널A가 지난해 12월 31일 ‘재난대비 우수 방송사’로 선정돼 방통통신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채널A가 적극적인 재난 대비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채널A는 지난해 11월 22일 방통위 점검 당시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이 방통위의 표준안을 따르면서 방송사 내부 사정에 맞게 작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난 자동자막 송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재난 대비 상태가 우수하다는 평도 나왔다. 침수, 정전 등의 사태에서도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도록 방송재난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채널A는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 등 국내 방송사 10곳 중 유일하게 재해 재난 현장 취재 시 취재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채널A의 가이드라인이 위험도 및 상황에 따른 취재 등급 기준을 자세히 마련했으며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기본 장비 목록을 갖추고 최대 출장 기간 제한, 복귀자의 건강검진, 사고 시 보상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등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영지원본부 자산관리팀 이주현

## ‘뉴스TOP10’ 유튜브 계정 구독자 20만 명 돌파

채널A ‘뉴스TOP10’ 유튜브 계정 구독자가 지난달 20만 명을 돌파했다.

채널A 시사보도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별도 유튜브 계정으로 운영되는 ‘뉴스TOP10’은 현재 구독자가 22만 명을 넘었고, 누적 조회수도 2억 회에 육박하고 있다.

주목도 높은 뉴스 10개를 선정한 꼭지 당 10~15분 정도로 관련 내용을 심층 정리해주는 때문에 짧은 시간에 충실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특히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10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한 ‘뉴스TOP10’은 5년 넘게 높은 시청률과 단독 보도 등으로 채널A의 대표 시사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뉴스TOP10’은 최근에도 배우 김부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등의 출연으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보도본부 디지털시스템 이영훈

# “콘텐츠에 대한 애정, 다채로운 콘텐츠로 응답하겠습니다”

## 동아일보·채널A 입사자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 ① 입사 후 포부
- ② 요즘 관심사
- ③ 최종 직장 / 학교



김기윤 / 동아일보  
편집국 문화부

- ① 개인전보단 '팀' 전이, 독주보단 협주가 제겐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동아일보 지면도 동아일보라는 '팀'이 매일 만드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등신문의 퍼포먼스에 품위를 더하고 큰 울림을 주도록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 ② 요즘 온갖 잡지식이 가득한 유튜브 채널을 즐겨봅니다. 학설, 영화, 스포츠 뒷이야기부터 학자, 정치인 채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 ③ 문화일보



김형민 / 동아일보  
편집국 경제부

- ①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주변에 말할 때 '네가 무슨 기사를 한다고 그러니'라는 편견을 들었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써 내려가는 역사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 ② 동아일보 입사와 함께 큰 기쁨을 준 소식은 아내의 임신입니다. 1년을 기다린 만큼 더 없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건강할 수 있게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③ 조선경제아이



박영민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광주호남취재본부

- ①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유지하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동아미디 어그룹을 빛낼 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② 어떻게 하면 동아 구성원들과 빠르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최근 저의 요즘 관심사입니다. 동아미디 어그룹의 선·후배님들 많은 가르침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③ 전북일보



송은석 /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 ① 어느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새로 출발하는 지금부터는 내일을 위한 사진이 아닌 십수 년 후에도 바라볼 수 있는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꿈을 꾸겠습니다.
- ②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 '레드데드리DEM션2'와 영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8'을 보면서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③ 서울경제신문



신희철 /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2부

- ① 디지털 시대에 신문의 고유 가치를 더욱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많이 쓰고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독자와 소통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기술은 미래의 정치 사회 시스템마저 변화시킬 것입니다.
- ③ 서울경제신문



지민구 /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1부

- 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자로 성장하겠습니다.
- ② 저는 최근 '재미있는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만큼이나 독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자를 위해 '재미있게 읽을 기사'도 열심히 찾아 쓰겠습니다.
- ③ 서울경제신문



김우정 / 동아일보  
출판국

- ① 고된 담금질 끝에 동아매거진의 구성원으로서 오롯이 제 몫을 다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깊고 넓게 분석하는 기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② 올해 백 주년을 맞는 3.1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역사와 기억이 어떻게 호명되는지 예의주시하고자 합니다.
- ③ 서강대 대학원 사학



정보라 / 동아일보  
출판국

- ① 동영상과 기사 그래픽 등을 제작해 뉴스 콘텐츠에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독자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겠습니다.
- ② 영상 편집과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 활용법, 코딩하는 법, 영상 편집 기술 등을 배우려고 합니다.
- ③ 고려대 경영학과



김윤진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경영지식팀

- ① 동아미디 어그룹만의 차별화된 경영 전문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에게 많이 듣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언젠는 믿음만한 후배가 되겠습니다.
- ② 요즘 넷플릭스에서 몰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많이 보고 익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저에게 적극 추천해주세요.
- ③ 매일경제



이용호 / 동아일보  
AD본부

- ① 업무와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운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해 새로운 이윤창출의 활로를 열고 싶습니다. 회사 내 여러 선배님들과 거래처에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신뢰를 쌓아 가겠습니다.
- ② 청약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 합니다. 아파트가 의정부에 있어서 요즘 경기 북부 지역의 아파트 시세 및 개발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 ③ 남서울대 광고홍보학과



윤세진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지방서부팀

- ① '마음가짐 하나가 전체를 바꾸는 희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마케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다져 동아일보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 ② 지금으로서는 다음 달 아내가 건강하게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이 제일 큰 바람이자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③ 조선엠앤엘



서규진 /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IP법무팀

- ① 겸청하고 익혀서 빠르게 적응하겠습니다. 언론·방송 및 미디어경영에 관련된 법률 이슈를 학습하여 업무에 적용하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와 동반성장을 이루겠습니다.
- ②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1인 미디어 채널을 구독 중입니다. 특히 인문학, 심리학, 의학 및 법학 관련 콘텐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심신단련을 위해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 ③ 법무법인 루츠



손요진 / 채널A  
편성본부 콘텐츠플러시팀

- ① 콘텐츠플러시팀에서 콘텐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채널A의 대체 불가한 테이블세터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 ② 몇 해 전부터 커피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커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할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습니다.
- ③ 폭스네트워크그룹 코리아



이정원 / 채널A  
편성본부 콘텐츠플러시팀

- ① 콘텐츠를 통해 채널A의 가치를 플러스시키겠습니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는 공감과 배려로, 사내 따뜻함을 플러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② 우연히 해금에 관심이 생겨 틈틈히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단 두 줄의 실이지만 연주하는 사람의 감정과 호흡까지 담아내는 해금처럼, 시청자들의 마음을 읽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 ③ 재능방송



김남호 / 채널A  
제작본부 제작4팀

- ① 망하더라도 품나게 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동아미디 어그룹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② 뭐 재미난 일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철딱서니 없는 40세입니다.
- ③ MBC, 남색화염오락문화(중국)



박동휘 / 채널A  
드라마센터

- ①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고 보는 대세 채널A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② 6년째 키운 거북이(양치)와 따뜻한 봄을 맞이할 좋은 짝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차가운 겨울이지만 살랑살랑 봄바람이 기다려집니다.
- ③ 김중학프로덕션